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 텍스트의 적층구조와 진지왕·도화녀·비형랑 관련 설화의 결합원리

권도경*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진지왕의 기저서사와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의 적층구조
3. 도화녀의 1차 적층서사와 도목문신(桃木門神) 설화
4. 비형랑의 2차 적층서사와 두들(豆豆里·豆豆乙)·목랑(木郎) 설화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가 <도화녀 비형랑>을 진지왕계 왕권설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왕권설화적 특징이 왜 하필 역사적 실존인물도 아닌 도화녀·비형랑이라는 허구적 캐릭터의 고유명사와 결합되어있으며, 그 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서사 인식적 연맥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해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재 진지왕의 왕력기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도화녀 비형랑>의 기저서사가 진지왕의 등극담이며, 이것의 반(反) - 서사로 존재하는 진지왕 폐위담의 진실성을 서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저서사를 변형시킨 데서 출발한 텍스트라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다음은 이 서사적 목적성과 도화녀·비형랑 관련설화의 상호 결합원리에 주목하였다. 도화녀의 경우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데다 해당 고유명사가 직접 거명된 자료 전승이 없지만 그 이름이 연상시키는 도목(桃木)과 관련된 방계 설화자료 속에서 비형랑의 신적인

*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문신에 대응되는 두타주니(豆打追儼)와 도목문배(桃木門排) 관념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도화녀와 관련된 이 도목설화의 연원이 자체적으로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의 서사목적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비형랑의 문신관념에 대한 서사인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도화녀 관련설화가 해당 텍스트의 서사목적을 매개하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비형랑의 기원설화라고 알려져 온 목랑·두들 설화가 비형랑의 신적인 문신(門神)과 직접으로는 관련 없이 별도의 개별 맥락에 의해 생성되었던 신라 왕가 토착 목신(木神) 전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애초 문신이 아니었던 목신에 관한 신앙관념이 비형랑의 문신에 대한 관념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진지왕 왕권의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의 서사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맥락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 <도화녀 비형랑>, 도화녀, 비형랑, 진지왕, 도목설화, 목랑설화, 두들설화, 진지왕 왕권설화, 도목벽사, 도목문배, 문신, 목신, 기저서사, 적층서사, 반(反) - 서사, 『삼국사기』, 진지왕 폐위담

1. 들어가는 말

<도화녀(桃花女) 비형랑(鼻荊郎)>¹⁾은 독특한 설화다. 왕과 민녀(民女) 사이의 신분갈등, 유부녀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권력자의 관탈(官奪) 욕망이 지니는 윤리성 문제, 귀신과 인간 사이의 신비한 이류교혼, 귀신자(鬼神子)가 역귀(疫鬼)를 죽이고 문신(門神)으로 좌정하기까지의 이니시 에이션 등 향유층의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갈등을 구성하는 핵심 등장인물인 진지왕(眞智王)·도화녀·비형랑이 모두 등장하는 텍스트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奇異)편에 실려 있는 <도화녀 비형랑> 본편 외에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 <桃花女 鼻荊郎>,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경주부(慶州府) 고적조(古蹟條)에 <귀교(鬼橋)>²⁾란 항목명으로 전하는 텍스트 단 한 편밖에 없다. 그런데 이 <귀교>는 『삼국유사(三國遺事)』본 <도화녀 비형랑>을 모본(母本)으로 하면서도 진지왕 왕권 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진지왕의 왕권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탈락되고 비형랑의 탄생에서 문신좌정으로 종결되는 비형랑 서사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텍스트다. 따라서 엄밀히 분류하자면 비형랑 설화의 범주에 귀속되게 된다.

이 외에는 두 명의 인물이 같이 등장하는 텍스트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명 이상이 만나는 상호 교차지점에서 유사한 서사갈등이 발생하는 텍스트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진지왕·도화녀·비형랑을 각각 왕 혹은 권력자·민녀·서자(庶子) 혹은 문신(門神)으로 일반화해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권력자와 민녀 사이의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³⁾나 인귀교혼 설화⁴⁾, 문신 설화⁵⁾ 일반에 속하는 텍스트가 <도화녀 비형랑>의 직접적인 이본이 될 수도 없다. 우선 <도화녀 비형랑>에는 관탈(官奪) 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애당초 관탈민녀형 설화와의 공통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귀교혼 설화 일반에 속하는 텍스트가 <도화녀 비형랑>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귀교혼의 주체가 권력자와 민녀이거나 시공간적 배경 혹은 관련 증거물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여타의 문신 설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형랑과 더불어 한국 문신의 대표격인 처용(處龍)에 관한 전승이 화중에게 <도화녀 비형랑>계 설화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처용이라는 고유명사를 문신으로 일반화 시킨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물과 시공간

2) <鬼橋>, 『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蹟條.

3) 최래옥, 『官奪民女型 說話의 연구』, 『韓國古典散文研究』, 장덕순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 1981, pp.1-570.

4) 장덕순, 『韓國說話文學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5) 왕가용, 『한·중 문신 설화의 유형성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38.

의 특수성에 공유지점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각각의 인물을 개별적으로 관련시킬 수 있는 설화 전승의 연맥은 확인된다. 일단, 진지왕과 관련해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재 진지왕의 왕력기사가 존재한다. 둘 사이의 서사적 차이를 검토해보면, <도화녀 비형량>의 기저서사가 진지왕의 등극담이며, 이것의 반(反) - 서사로 존재하는 진지왕 폐위담의 진실성을 서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저서사를 변형시킨 데서 출발한 텍스트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서사적 목적성과 도화녀·비형량 관련설화의 상호 결합원리가 바로 첫 번째 주안점이 된다. 도화녀의 경우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데다 해당 고유명사가 직접 거명된 자료 전승이 없다. 대신 그 이름이 연상시키는 도목(桃木)과 관련된 방계 설화자료 속에서 비형량의 신적인 문신에 대응되는 두타추나(豆打追儺)와 도목문배(桃木門排) 관념의 존재가 확인된다. 도화녀와 관련된 이 도목설화의 연원은 자체적으로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량>의 서사목적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비형량의 문신관념에 대한 서사인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화녀 관련설화가 해당 텍스트의 서사 목적을 매개하는 맥락이 본고의 두 번째 주안점이다. 비형량의 경우는 목랑·두들 설화와 관련하여 기존연구에서 비형량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설화 전승의 존재가 지적⁶⁾된 바 있지만, 확인 결과 이들 설화는 원래 비형량의 신적인 문신(門神)과 직접으로는 관련 없이 별도의 개별 맥락에 의해 생성되었던 신라 왕가 토착 목신(木神) 전승⁷⁾이었다. 애초 문신이 아니었

6) 강은혜, 「<도화녀·비형량>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豆豆里)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120, 한국어문학회, 2013, pp.111-139.

7) 이들 전승에 비형량이 결합된 것은 <도화녀 비형량> 텍스트의 성립 이후로 나타났다. 즉, 비형량의 직접적인 설화 연원으로 알려져 온 목랑(木郎)·두들 전승은 오히려 <도화녀 비형량> 텍스트를 전제로 비형량과 관련될 수 있는 방계의 제2차 자료일 뿐이지, 비형량이란 이름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던 목신에 관한 신앙관념이 비형랑의 문신에 대한 관념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진지왕 왕권의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의 서사목적 을 실현하게 되는 맥락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고의 세 번째 연구 목적이 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가 <도화녀 비형랑> 을 진지왕계 왕권설화의 성격⁸⁾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는 데는 동의하면 서도, 정작 그 왕권설화적 특징이 왜 하필 역사적 실존인물도 아닌 도화녀·비형랑이라는 허구적 캐릭터의 고유명사와 결합되어있으며, 그 결합 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서사 인식적 연맥 관계에 대해 서는 해명해 내지 못했던 부분⁹⁾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8) 강은혜, 『<도화녀·비형랑>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豆豆里)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 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120, 한국어문학회, 2013, pp.111-139; 엄기영, 『『三國遺事』<桃花女 鼻荊郎>의 신화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연구』25, 한국문화연구원, 2013, pp.37-61.

9) 강은혜의 선행연구는 목랑·두들 설화와 <도화녀 비형랑>의 관련성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설화에서 문신(門神) 신직과의 연관성을 해명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 과제를 남겨놓았다. 뿐만 아니라 목랑·두들이 목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상극인 대장장이·연금술사 집단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점, 그리고 목랑·두들이 관련 설화 자료에서 인간에게 가하는 역귀(疫鬼)로 형상화 되어 있지 않는데다 오히려 역귀의 해악을 벽사하는 구축자(驅逐者)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깨비로 규정해 놓았다는 점에서 오류가 확인된다. 한편, 엄기영의 선행연구에서는 비형랑의 문신좌정이 민속신앙의 측면에서 진지왕의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나, 비형랑의 민속신 좌정이 진지왕의 왕권과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데다가, 비형랑의 문신 신직이 진지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맥락을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 과제를 남겨놓았다.

2. <도화녀 비형랑>의 적층구조와 진지왕·도화녀·비형랑 관련설화의 신화적 결합원리

1) 진지왕의 기저서사와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의 적층구조

<도화녀 비형랑>이 수록되어 있는 『삼국유사』 기이1편의 신라조는 건국신화와 왕권신화의 연속으로 되어 있고, 신화소를 가지고 있는 후대왕들의 기사를 연속해서 실고 있다. 특히, <도화녀 비형랑>의 편재 위치는 신라 제24대 진흥왕과 제26대 진평왕의 왕권설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도화녀 비형랑>은 진지왕이란 이름이 제목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진지왕의 왕권설화 구실을 하는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박혁거세 신화>부터 시작되는 기이 제1편의 편재 순서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2]

- ① 신라시조 혁거세왕
- ② 제2대 남해왕
- ③ 제3대 노례왕
- ④ 제4대 탈해왕
- ⑤ 김알지: 신라 김씨왕 시조
- ⑥ 연오랑과 세오녀: 제8대 아달라왕(阿達羅王)
- ⑦ 미추왕의 죽엽군: 제13대 미추왕(味鄒王)
- ⑧ 내물왕과 김제상: 제17대 내물왕
- ⑨ 제18대 실성왕
- ⑩ 사금갑: 제23대 법흥왕
- ⑪ 지철로왕: 제22대 지증왕
- ⑫ 진흥왕: 제24대 진흥왕
- ⑬ 도화녀와 비형랑: 제25대 진지왕
- ⑭ 하늘이 내려준 옥대: 제26대 진평왕

- ⑮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 제27대 선덕여왕
- ⑯ 진덕왕: 제28대 진덕여왕
- ⑰ 김유신: 추충 홍무대왕
- ⑱ 태종 춘추공: 제28대 무열왕
- ⑲ 장춘랑과 파랑: 제28대 태종무열왕의 삼국통일 기사에 해당.

왕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지 않은 [자료2] - ⑥ · ⑩ · ⑬ · ⑭ · ⑲의 기사는 관련인물 혹은 사물로 인한 사건이 해당 시기의 왕권 향방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다. 실제로 등극한 왕은 아니었던 [자료2] - ⑤ · ⑰은 각각 신라 김씨 왕계의 중시조이거나 새로운 왕조 개창에 버금가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추증왕(追贈王)이다. 특히, 진흥왕의 뒤를 이은 금륜태자(金輪太子) 진지왕을 폐위하고 동륜태자계(銅輪太子系) 왕권을 부활시킨 [자료2] - ⑭의 기사는 <천사옥대(天賜玉帶)>¹⁰⁾로 제명(題名)되어 있는데, 진평왕(眞平王)의 등극 시에 하늘이 옥대를 내리는 신이한 사적으로 진평왕의 왕권을 정당화 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동륜태자와 금륜태자는 진흥왕의 장자와 차자다. 동륜태자가 요절하자 그 장자인 김백정(金白淨) 대신에 금륜태자¹¹⁾가 진지왕으로 등극했고, 4년 만에 진지왕을 폐위시킨 김백정이 진평왕으로 등극하여 동륜태자계 왕권을 부활시킨 바 있다. 이 진평왕 왕권설화의 천사옥대는 천신(天神) 관념에 의해 왕권을 정당화 하고자 한 것으로, <신라건국신화>의 천강란(天降卵)이 보여주는 그것에 대응된다. 진평왕의 왕위계승권을 합리화 시키고자 한 목적성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천신관념 전승이 변형되어 진평왕의 왕권설화와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진평왕의 왕권설화 바로 앞에 편재된 <도화

10) <天賜玉帶>,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11) 사륜태자라고도 하나 진흥왕이 전륜성왕의 4륜보에 따라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학계에서는 금륜태자의 오기로 보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녀 비형랑>의 도화녀·비형랑 역시 진지왕의 왕위계승권을 정당화하고 신성화 하기 위한 서사 목적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에 실려 있는 진지왕에 관한 왕권기사를 <도화녀 비형랑>에서 뽑은 진지왕의 왕권서사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3]

① ㉔ 진지왕(眞智王)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사륜(舍輪)[혹은 금륜(金輪)이라고도 한다.]이다. 진흥왕(眞興王)의 둘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고 왕비는 지도부인(知道夫人)이다. 태자가 일찍 죽었으므로 진지가 왕위에 올랐다.

㉕ 원년(서기 576), 이찬 거칠부(居柒夫)를 상대등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맡겼다. 2년(서기 577) 봄 2월, 임금이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겨울 10월, 백제가 서쪽 변방의 주와 군에 침입하였다. 이찬 세종(世宗)에게 명하여 군대를 내어, 일선 북쪽에서 그들을 공격하여 처부수고 3천7백 명의 목을 베었다. 내리서성(內利西城)을 쌓았다. 3년(서기 578) 가을 7월, 진(陳)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백제의 알야산성(闕也山城)을 빼앗았다. 4년(서기 579) 봄 2월, 백제가 웅현성(熊峴城)과 송술성(松述城)을 쌓아 산산성(山城), 마지현성(麻知峴城),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

㉖ 가을 7월 17일, 임금이 돌아가셨다.

㉗ 시호를 진지(眞智)라 하고 영경사(永敬寺) 북쪽에 장사 지냈다.¹²⁾

12) “眞智王立 諱舍輪[或云金輪] 眞興王次子 母 思道夫人 妃 知道夫人 太子早卒 故眞智立, 元年 以伊滄居柒夫爲上大等 委以國事, 二年 春二月 王親祀神宮 大赦 冬十月 百濟侵西邊州郡 命伊滄世宗出師 擊破之於一善北 斬獲三千七百級 築內利西城, 三年 秋七月 遣使於陳 以獻方物 舉百濟闕也山城, 四年 春二月 百濟築熊峴城 松述城 以梗山城麻知峴城內利西城之路 秋七月十七日 王薨 諡曰眞智 葬于永敬寺北”,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 ② ㉗ 제25대 사륜왕(舍輪王)은 시호가 진지대왕(眞智大王)이고 성은 김씨이며, 왕비는 기오공(起烏公)의 딸인 지도부인(知刀夫人)이다. 대건(大建) 8년 병신(서기 576)에 왕위에 올라,
㉘ 나라를 4년 동안 다스렸다.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중략)
㉙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었다. (중략)
㉚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글을 지었다. ‘성스러운 제왕의(하략)’¹³⁾

[자료3] - ①은 각각 『삼국사기』본 왕력기사고 [자료3] - ②는 <도화녀 비형랑>에서 뽑은 진지왕 서사다. 서두의 [자료3] - ① - ㉗와 ② - ㉗는 진지왕의 등극기사로, 사건과 인물 구성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말미의 [자료3] - ① - ㉙·㉚, [자료3] - ② - ㉙·㉚도 마찬가지다. 진지왕 관련 전승에서 불변하는 고정면(固定面)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서사구성 요소가 다른 건 [자료3] - ① - ㉘와 [자료3] - ② - ㉘ 부분만이다. [자료3] - ① - ㉘에 기술되어 있는 4년간의 정치적 치적(治積)이 [자료3] - ② - ㉘에서는 생략되는 대신 황음정란(荒淫政亂)이란 폐위 이유가 삽입되어 있다. [자료3] - ① - ㉘에 4년간 구축한 치적을 진평왕과 동등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한 기사까지 있으니, [자료3] - ② - ㉘는 동륜태자계 집단의 시각에 의해서 조명된 진지왕에 대한 평가를 적층시킨 것으로, [자료3] - ① - ㉘에 대응되되 진지왕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일종의 반(反) - 서사임을 알 수 있다. 진지왕의 정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진지왕 전승의 가변적(可變的)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정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고정면인

13) “第二十五 舍輪王 諡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即位御國四年 政亂荒淫 國人廢之, 王廢(中略)而崩(中略) 時人作詞曰 聖帝(下略)”,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자료3] - ② - ㉑ - ㉒ - ㉓를 기준으로, 들고 나는 변이 폭이 확대되어 있는 비고정면(非固定面)이 된다. 비고정면에 속하는 [자료3] - ② - ㉒를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여 고정면으로 바꾸면, ‘진지왕은 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3] - ② - ㉒의 비고정면이 진지왕에 대한 동륜태자계 집단의 부정적인 평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술된 내용이나가 문제가 될 것인데, 고정면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료3] ② - ㉓의 왕권 확인 기사로 종결되고 있으니, [자료3] - ②는 동륜태자계 집단에 의해 당대의 주도적인 평가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3] - ② - ㉒의 타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자료3] - ① - ㉒와 같은 형태의 긍정적인 평가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진지왕의 치적을 부정하는 시각을 일단 제시한 뒤에 그것을 뒤집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지왕의 왕권 정당성을 합리화 하는 정(正) - 반(反) - 합(合)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본 [자료3] - ①에서는 종결부([자료3] - ① - ㉒)에 가서야 제시되는 시호(諡號) 봉호(封號)가 [자료3] - ②에서는 처음부터 제시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삼국사기』본의 [자료3] - ① - ㉑ - ㉒ - ㉓를 [자료3] - ② - ㉑로 약술하여 정(正)에 해당하는 도입부로 삼고, [자료3] - ② - ㉒ - ㉓·㉔에서 반(反) - 합(合)으로 진지왕의 왕권 정당성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합(合)에 해당하는 [자료3] - ② - ㉒에서 다시 시호를 성제(聖帝)로 제호(題號) 한 것은 기왕에 [자료3] - ② - ㉑에서 이미 대전제로 제시했던 진지왕이란 시호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진지왕의 왕권을 신성화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본의 [자료3] - ① - ㉒에서 진지왕을 영경사 북쪽에 장사지냈다고 했으니, [자료3] - ② - ㉒에서 사람들이 지어올린 글과 반복 봉호는 『삼국사기』본의 영결제사 중에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다. 고정적

인 요소를 다소 포함하고 있는 비고정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치중립적으로 바꾸어 고정면을 추출하면 각각 ‘금륜태자(사륜태자) 진지왕이 등극하였고, 왕후는 지도부인이었다.’와 ‘진지왕이 임종하여 시호를 올렸다.’ 정도가 될 것이다.

<도화녀 비형랑>에서 고정면만을 추출하여 진지왕에 관한 기저서사(基底敍事)를 재구성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4]

- ① 금륜태자(사륜태자) 진지왕이 등극하였고, 왕후는 지도부인이었다.
- ② 진지왕은 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 ③ 진지왕이 죽었다.
- ④ 진지왕이 임종하여 시호를 올렸다.

동륜태자계 집단 중심적인 시각으로 만들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지왕 폐위담의 서사적 목적성을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화녀 비형랑>은 애초에 창작될 수 없는 텍스트다. [자료4]의 기저서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진지왕 폐위담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진지왕 왕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서사적 목적성이 [자료4]의 기저서사를 [자료3] - ②로 변형시킨 요인이 된다. 이 진지왕의 기저서사를 특정한 서사적 목적성 실현을 위해 비고정면을 적층시키고 변형한 것이 바로 <도화녀 비형랑>에서 진지왕을 주체로 한 서사를 추출한 [자료3] - ②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4]의 기저서사에 대한 1차 변형 서사가 된다. 따라서 [자료3] - ②-㉠·㉡와 ㉢·㉣에 각각 결합되게 되는 진지왕·도화녀의 인귀교 혼담과 진지왕자(眞智王子) 비형랑의 문신 좌정담은 진지왕 왕권의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의 향유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 도화녀·비형랑에 관련된 개별 설화 전승을 적층시킨 2차 서사로의 변형 결과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자료4]의 기저서사를 1차 변형시킨 [자료3] - ②는 왕권의 재확인을 위한 진지왕의 이니시에이션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화녀 서사는 진지왕의 1차 변형서사에 적층된 1차 적층서사가 되고, 비형량 서사는 2차 적층서사가 된다.

3. 도화녀의 1차 적층서사와 도목문신(桃木門神) 설화

<도화녀 비형량>에서 도화녀 서사는 진지왕을 주체로 한 왕권서사의 두 개 부분에 걸쳐서 나누어져 삽입되어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도화녀 비형량>에서 해당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제시해 본다.

[자료5]

① 제25대 사륜왕(舍輪王)은 시호가 진지대왕(眞智大王)이고 성은 김씨이며, 왕비는 기오공(起烏公)의 딸인 지도부인(知刀夫人)이다. 대건(大建) 8년 병신(서기 576)에 왕위에 올라 나라를 4년 동안 다스렸는데, ⑦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서 나라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② 이에 앞서 ⑧ 사량부(沙梁部) 백성의 딸이 있었는데, 자색이 곱고 이름 다워서 당시에 도화랑(桃花娘)이라고 불렀다.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 관계를 갖고자 하자 여자가 말하였다.

“여자가 지켜야 하는 일은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천자의 위엄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죽이겠다면 어찌 할 것이냐?”

“차라리 거리에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다른 남자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왕이 장난삼아 말하였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왕은 그 여자를 놓아 보내주었다.

③ 이 해에 왕이 폐위되어 죽었는데, 2년 후에 도화랑의 남편도 죽었다.

④ 열흘 뒤에 갑자기 밤중에 왕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여자의 방으로 들어와서 말하였다.

“내가 옛날에 허락하였는데,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괜찮겠느냐?”

여인은 가벼이 허락하지 않고 부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부모가 말하였다.

“임금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리고는 딸을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㉗ 왕은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늘 오색구름이 집을 덮었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홀연히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 ㉘ 여자는 이 일로 인해 태기가 있었다. 달이 차서 해산을 하려 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면서 남자 아이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고 하였다.¹⁴⁾

[자료5] - ①은 [자료3]의 진지왕 왕권서사에서 [자료3] - ② - ㉘의 폐위담을 이루는 부분이다. [자료5] - ① - ㉗에서 확인되듯이 일단 여기서 진지왕은 한번 폐위되었다. 폐위의 이유는 황음정란(荒淫政亂)이다. 그런데 [자료5] - ③을 보면 진지왕의 폐위 사실이 한 번 더 기술되어 있다. [자료3]의 진지왕 왕권서사에서 [자료3] - ② - 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같은 내용을 두 번 기술한 것이다. 이처럼 반복 기술된 진지왕의 폐위 사실에 도화녀와의 에피소드가 두 번으로 나누어져 부기되어 있는 것은 진지왕 왕권의

14) “第二十五 舍輪王 謚眞智大王 姓金氏 妃起烏公之女 知刀夫人 大建八年丙申卽位[古本云 十一年己亥 誤矣] 御國四年 政亂荒淫 國人廢之, 此沙梁部之庶女 姿容艷美 時號桃花娘 王聞而召致宮中 欲幸之 女曰 女之所守 不事二夫 有夫而適他 雖萬乘之威 終不奪也 王曰 殺之何 女曰 寧斬于市 有願靡他 王戲曰 無夫則可乎 曰 可 王放而遣之 是年 王見廢而崩 後二年其夫亦死 浹旬忽夜中 王如平昔 來於女房 曰 汝昔有諾 今無汝夫 可乎 女不輕諾 告於父母 父母曰 君王之教 何而避之 以其女入於房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 忽然無蹤 女因而有娠 月滿將產 天地振動 產得一男 名曰鼻荊”,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정당화와 신성화를 위한 서사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료5] - ① - ㉔에서는 도화녀를 훼손시키지 않고 놓아 보내주었던 에피소드를 부기함으로써 진지왕 폐위 명분인 황음정란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황음정란으로 인한 폐위 사실을 기술한 후에, 다시 폐위 전의 과거 에피소드로 도화녀를 든 것은 도화녀와의 에피소드가 진지왕의 등극담에 대한 반(反) 담론으로 존재하는 폐위담을 재차 뒤집는 반(反) - 반(反) 서사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도화녀에 대한 훼손 포기담을 제시함으로써 폐위담의 허구성 입증에 완결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진지왕 왕권서사 논리 속에서 본다면 폐위 사실은 없던 것이 되고 애초 4년 전에 등극했었던 일만 남게 된다.

만약 진지왕 서사와 도화녀 서사의 결합이 진지왕 왕권 정당화를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도화녀의 훼손 포기담만으로 충분하다. 진지왕 폐위담의 허구성 입증이라는 애초의 서사목적이 달성된 뒤에 다시 [자료5] - ③의 폐위기사를 반복 기술한 것은 도화녀와 진지왕의 인귀교혼담 삽입이 새로운 서사목적 달성을 위해 적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말해준다. 진지왕 왕권서사의 논리 속에서 기왕의 폐위 명분이 허구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도화녀와 진지왕의 인귀교혼은 폐제(廢帝)와 민녀의 그것이 아닌 성제(聖帝)와 민녀 사이의 결연이 되게 된다. 그런데 이 둘의 결연과 그로 인한 비형랑의 탄생은 [자료5] - ④ - ㉔·㉕에서 확인되듯이 신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도화녀와의 이류교혼이 진지왕으로 하여금 신성혼을 이루고 신성혈통을 탄생시킬 부계(父系)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화녀 서사는 진지왕의 왕권 정당화와 신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텍스트의 서사목적에 성취하게 하는 서사적 자기 완결성을 진지왕의 왕권서사에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진지왕의 성제 복권은 진

지왕 서사와 도화녀 서사의 결합에 의해 일차적으로 자체 내부에서 완결된 서사목적이 된다.¹⁵⁾ 대신, 비형량의 문신좌정은 진지왕의 성제 복권을 위한 이차적인 매개 서사가 되어, 부가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화녀의 정체이다. 도화녀가 진지왕 왕권의 신성화를 위해 결연 상대자이자 신성혈통 계승의 매개자로 선택된 것이라면, 관련 도화녀 설화 전승 속에서 신화적인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도화녀 또한 신성혈통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성혼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남녀 배우자 모두 신성혈통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진지왕 왕권의 신성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폐제 진지왕만 성제로 복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화녀의 혈통에도 신성 기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도화녀에게서 확인된 신성 기원과 비형량의 신직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화녀 관련 설화 전승 속에서도 비형량의 문신 신직과 유사한 형태의 신앙관념이 확인되어야 도화녀가 성제 진지왕에서 문신 비형량으로 계승되는 혈통 계보에 문신에 관한 신성관념을 유입시켜주는 신성 매개자가 될 수 있다. 진지왕에게는 문신과 관련한 신성관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형량의 문신 신직은 그 소종래가 모계인 도화녀에게서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화녀 관련 자료에서 문신 신직이 찾아져야 진지왕의 아들인 비형량의 신직이 하필 문신으로 설정된 이유가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화녀의 신성기원과 진지왕계와의 관련성이다. 도화녀가 비형량의 문신 신직과 관련된 신앙관념을 기원으로 한 인물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해당 신성기원이 진지왕계의 전통적인 신앙관념과 연관 관계가 없다면 굳이 도화녀가 진지왕 왕권과 신성성의 매개자로 선택될 이

15) 이렇게 되면 비형량은 기존 논의에서와는 달리 진지왕의 성제 복권을 위한 유일한 매개체가 아니게 된다.

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도화녀가 직접적인 신성관념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도화녀란 이름이 상기시키는 특정 대상물 중에 관련 신앙관념이라도 존재해야 한다. 도화녀란 인명이 이름의 연상관계에 있는 특정 신앙 대상물과 습합되어, 신성대상이 아닌 도화녀가 신성인물 도화녀로 인식되는 신성인식의 연상과 혼효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진지왕과 결연한 인물 도화녀가 특정 신앙관념 대상의 의인화 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인식의 형태다.

일단, 도화녀란 인명(人名)이 기재되어 있는 사료나 기록, 설화 전승은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도화녀는 역사적 실존인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도화녀란 인명이 직접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 <도화녀 비형량> 텍스트 내부에서 신성적 면모가 직접 기술되어 있지도 않다. 이처럼 건국시조나 혹은 왕권 주체자와 혼인하는 여성인물에게 직접적인 신성표징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몽신화>의 유희는 수신 하백의 딸로 여신임이 애초부터 기술되어 있지만, <단군신화>의 웅녀는 여신임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자는 시조모가 되기 전부터도 여신이었지만, 후자는 시조모 되기라는 이니시에이션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여신이 된다. 여기서 인간으로 화하는 변신화소는 웅녀가 통과제의 후에 비로소 획득하게 될 시조모의 신성을 구상적으로 보여주는 모티프가 될 수 있다. 곰 토tem이라는 동물신 관념에 신성기원을 대고 있지만 신성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수반하고 있지 않은 웅녀에게 시조모 되기의 이니시에이션과 변신은 신성성 획득 계기가 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웅녀는 신성 획득형 여신이라고 할 수 있다. 도화녀가 바로 이 후자의 패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신과 인귀교혼(人鬼交婚) 하는 신이화소는 변신화소에, 인귀교혼 하여 문신을 탄생시키는 출산의 과정은 신라 최초의 공식적인 문신을 낳은 시조모

되기라는 통과제의가 되어 용녀의 이니시에이션에 대응될 수 있다.

대신, 도화녀란 고유명사의 기원이 복숭아꽃가지를 의인화 한 상징과 향유의식의 접맥관계가 있다고 보게 되면, 도목(桃木)에 관한 민속신앙의 맥락과 기원이 닿게 된다. 한국민속에서 도화가지가 악귀를 쫓는 주술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특히, 고려조에서 조선조까지는 설달그믐 날이면 대문에 복숭아나무를 꽂아 놓고 벽사진경(辟邪進慶) 하는 풍속이 존재했다. 이 대문삽도(大門插桃) 풍속이 도목과 문신 신직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자료6]

- ㉗ 대문 위에 복숭아나무를 꽂는 것이 얼마나 괴상한 일인가,
뜰 가운데 폭죽 소리가 정말로 지루하다.
벽운단(辟瘟丹) 한 알로 전염병 피한다는 말도 헛말이지만,
꺼꾸러져 술 마시느라 사양치는 않겠네.¹⁶⁾

[자료7]

봉익대부(奉翊大夫) 홍순(洪順)이라는 사람이 상서 이순(李淳)과 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골동품이나 서화 등을 걸었다가 이순이 모두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가보로 아끼던 거문고 현학금(玄鶴琴)을 걸고 최후의 승부를 겨루었으나 이순이 또 졌다. 그래서 이순이 거문고를 홍순에게 넘겨주면서 말하기를, “이 거문고는 이백년 이상이나 전해오는 우리 집 세전지물의 가보일세, 물건이 오래 되어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 공은 삼가 잘 간수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에 거문고 줄이 얼어서 끊어지며 소리가 나자 홍순은 이순이 귀신이 붙어있을 수 있다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귀신의 소리라고 짐작하고 ㉘ 복숭아 나뭇가지 비(桃荊)로 거문고를 마구 때려 귀신을 내쫓았다.¹⁷⁾

16) “門上插桃何詭誕，庭中爆竹奈支離，辟瘟丹粒猶虛語，爲倒醇醅故不辭。”李奎報，〈守歲〉，『東國李相國集』。

[자료8]

해마다 설달 그믐날에는 어린아이 수십 명을 모아 무속의식에서의 초라니 광대적인 진자로 삼고, 이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붉은 두건을 씌워 궁중으로 들여보내면 천문·지리·歷數(역수)를 맡아보는 觀象監(관상감)이 북과 피리를 갖춘 다음, 새벽이 되면 악귀를 쫓아내는 方相氏(방상시)로 하여금 이들 초라니 무리들을 궁 밖으로 쫓아내게 한다. 민간에서도 또한 이 일을 모방하되 초라니인 진자는 없으나 녹색 댓잎(竹葉), 붉은 형지(荊枝), 익모초(益母草) 줄기, ㉠ 도동지(桃東枝)를 한데 묶어 빗자루를 만들어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북과 방울을 울리면서 휘이휘이 악귀를 문 밖으로 몰아내는 흉내를 내는데 이를 방매귀(放枚鬼)라 한다.¹⁸⁾

[자료6]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는 한시로, 송구영신(送舊迎新)하던 연말 세시풍속(歲時風俗)을 읊은 것이다. 벽사(辟邪)를 위해 벽온단(辟瘟丹)·폭죽 같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자료6] - ㉠의 ‘대문삽도(大門插桃)’이다. 이는 대문에 복숭아나무를 꽂아서 도목이 본래 지녔다고 믿어졌던 축귀의 신통력을 아예 집안의 모든 사물이 들고 나는 대문과 결합시켜서 일종의 도문(桃門) 기능을 하게끔 고정시킨 것이다. 사물의 출입 시에 복숭아나무가 악귀를 검열하여 쫓고 좋은 것만 들이는 도문(桃門) 역할을 한다는 신앙 상징체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도문배(桃門排) 관념은 같은 시기 고려조에서 행해지던 도열구나(桃茹驅儺)가 도문구나(桃門驅儺)화 된 형태에 해당한다. 이제현의 『익제집』을 보면 이 대문삽도는 [자료7] - ㉠의 복숭아나무가지로 만든 빗자루로 때리고 두들겨서(打) 악귀를 쓸어버리는 도열(桃茹)의 두타구나(豆打驅儺)와 같은 시기에 행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조선 초기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자료8] - ㉠의 복숭아나무가지 빗자루로 문간마다

17) 李齊賢, 『櫟翁稗說』, 『益齋集』.

18) 成俔, 『慵齋叢話』.

쓸고 다니면서 축귀하였던 방매귀(放枚鬼) 풍속이 기록되어 있어서 대문
삼도의 도문구나와 도열구나(桃苑驅儼)의 두타벽사가 결합된 추소구나(籌
掃驅儼)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목구나의 관념이 신라 시대에도 직접적으로 확인되며, 비형랑으로
이어지는 문신관념과의 연맥이 확인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일단, 도
화녀의 상징수(象徵樹)인 도목은 신라 왕가의 나무였다.¹⁹⁾ 『삼국사기』를
보면 도목이 2세기 초엽부터 등장²⁰⁾하기 시작하는데,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가 쓰여진 4세기보다 무려 2세기나 빠르다. 신라
도목(新羅桃木)은 왕궁동산(王宮園)과 왕경림(王京林)을 구성한 수목이
었다. 전자로는 남도원궁(南桃園宮)으로 불린 남궁(南宮)으로 남도원(南
桃園)이 있었는데, 신라왕실에서는 관원을 특별 과견하여 관리했다.²¹⁾ 후
자로는 복숭아나무 집단 식목지 혹은 자생지로 보이는 도림(桃林)²²⁾이 있
는데, 계림(鷄林)·천경림(天鏡林)·신유림(神遊林)과 같은 왕경숲이었
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최근 현재의 경주시 인왕동(仁旺洞)과 동천동(東川
洞)에 걸쳐 남궁지인(南宮之印)이라는 기와가 발굴되면서 남궁(南宮)²³⁾
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는데, 전자의 인왕동에서는 왕정(王井)과 제의유구
(祭儀遺具)가, 후자의 동천동에서는 왕경로(王京路)와 다수의 건물지 유
적들이 함께 발굴되어서, 본 왕성인 월성(月城) 이외에 별궁(別宮)으로 존

19) 고구려의 왕궁수(王宮樹)는 안학궁의 가로수길을 장식했던 배나무였다. (『三國史記』
卷第十九 高句麗本紀 第七, 陽原王 二年條).

20) 김윤하, 「신라 왕경숲 조성에 있어서 주요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권 5호, 한국조경학회지, 2004, pp.52-62.

21) 「南桃園宮 翁一人」, 『三國史記』 卷第三十九 雜志 第八.

22) 『三國史記』 卷第三十七 雜志 第六.

23) 역사학계에서 단 한 편 나온 최근 논문에서는 이 남궁을 의례를 주관하던 신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으로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81, 한국역사연구회, 2011, pp.139-174).

재했던 남궁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런데 전자의 인왕동쪽 남궁지(南宮址) 우물에서 희생제의의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과 아이의 사체가 발굴되었으며, 그와 함께 벽사의례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숭아씨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²⁴⁾ 신라 남궁은 도목의 벽사의례가 거행되던 신정(神井)에서 대규모의 왕실제사를 거행하던 신궁(神宮)이었으며, 이 제사의례에서 확인되는 것이 도목구나(桃木驅儺)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라 도목벽사 관념이 확인되는 지역이 신라 시대 경주부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사랑부(沙梁部)다. 인왕동과 동천동은 각각 경주부 남천(南川)과 동천(東川)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왕동의 북쪽과 동천동의 서쪽에 걸쳐있는 남궁 유적지는 고려시대에 남산부(南山府)로 편제된 사랑부에 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화녀 비형량>의 도화녀 서사인 [자료5] - ㉔ - ㉕에서 도화녀의 출신지로 기술하고 있는 사랑부가 바로 이 도목벽사의 제의유적지인 남궁지의 위치와 일치한다. 도화녀의 출신지가 하필 사랑부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라시대에 도목(桃木)은 고려조에서 조선조까지 도목두타(桃木豆打)와 도목문배(桃木門排)로 발전해 나간 도목구나(桃木驅儺) 관념의 신성수(神聖樹)였다고 할 수 있다. 숙종조의 백과지리서인 홍만선(洪滿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도 도목(桃木)을 백귀(百鬼)를 제어하는 선목(仙木)²⁵⁾으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두타(豆打)와 문배(門排)로 역귀를 구축(驅逐) 하는 도목에 대한 신성관념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신라 사랑부 남궁 제사유적지에서 확인된 도목벽사 관념과 일치한다. 도화녀는

24) 복숭아씨 벽사의례는 다량의 병의 입구를 깨는 제사의례와 함께 거행되었다. 신라 인왕동 남궁유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1년 6월 3일자 <우물에 던져진 아이-9세기 신라엔 무슨 일이?>에 상세히 우적 발굴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25) “桃劑百鬼之仙木”, 洪滿選, 『山林經濟』.

이러한 도목에 대한 신성관념을 의인화 해 놓은 수목인격신(樹木人格神) 관념과 접맥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도목이 지녔다고 믿어졌던 도목두타(桃木豆打)와 도목문배(桃木門排)의 신성기능이 인격화 된 도목인격신(桃木人格神) 관념과 도화녀란 인명이 연상시키는 도목신앙 관념이 향유층의 뇌리에서 습합되어 진지왕의 결연 대상인 도화녀를 도화목신(桃花木神) 도화녀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목목신에 관한 신앙관념이 도화녀와 습합되는 향유의 맥락을 전제로 하게 될 때 비로소 왜 하필이면 비형랑의 신적이 문신으로 선택되었는가 이해될 수 있게 된다. 도화녀의 도목설화 연원에서 확인되는 이 도목두타·도목문배의 신성관념이 비형랑 관련 설화 전승에서 그대로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향유 맥락적 전제와 관련되어 있다. 도목두타는 신라 왕가의 토착적인 목신 전승과 비형랑을 결합시켜 두들기는 목신의 중간적인 전이관념을 형성하고, 도목문배는 두들기는 문신의 비형랑 문배관념을 탄생시키게 하는 서사적 매개 장치가 된다.

4. 비형랑의 2차 적층서사와 두들(豆豆里·豆豆乙)·목랑(木郎) 설화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랑 서사는 도화녀 서사가 끝나는 부분에 연속하여 부기되어 있다. 이 비형랑 서사는 도화녀에게서 문신 능력을 이어 받은 비형랑이 반(反) 진지왕의 지배질서에 대하여 해당 능력을 입증한 결과 문신으로 좌정하는 방식으로 진지왕 왕권의 신성화를 완성하기까지의 이니시에이션으로 되어 있다. 해당 부분을 들어 본다.

[자료9]

① 왕은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늘 오색구름이 집을 덮었고 향기가 방안에 가득하더니, 7일 후에 홀연히 왕의 자취가 사라졌다. 여자는 이 일로 인해 태기가 있었다. 달이 차서 해산을 하려 하는데 친지가 진동하면서 남자 아이 하나를 낳았으니, 이름을 비형(鼻荊)이라고 하였다.

② 진평대왕(眞平大王)은 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다 길렀다. 나이가 15세가 되자 집사(執事)라는 벼슬을 주었다. 비형은 매일 밤마다 멀리 도망 나가 놀았다. 왕이 용사 50명에게 지키게 하였지만, 매번 월성(月城)을 날아 넘어서 서쪽 황천(荒川) 언덕 위(서울 서쪽에 있다.)에 가서 귀신들을 거느리고 놀았다. 용사들이 숲 속에 엎드려서 엿보았는데, 귀신들은 여러 절에서 울리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는 각각 흩어졌고 비형랑도 돌아오는 것이었다. (중략)

“그렇다면 네가 귀신들에게 ㉞ 신원사(神元寺)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으라고 하거라.”

비형은 왕명을 받들고 귀신들을 시켜서 돌을 다듬어 하룻밤 만에 큰 다리를 완성하였다. 그래서 그 다리를 귀교(鬼橋)라고 한다. (중략)

다음날 비형이 길달을 데리고 와서 뱀자 길달에게 집사 벼슬을 내렸는데, 과연 충성스럽고 정직하기가 짝이 없었다. 당시 각간 임종(林宗)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왕이 명하여 그를 아들로 삼게 하였다. 임종은 길달에게 명하여 ㉞ 흥륜사(興輪寺) 남쪽에 누문(樓門)을 세우게 하고 밤마다 그 문 위에서 자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한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해서 도망가자, 비형이 귀신들을 시켜 그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귀신들이 비형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달아났다.

③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글을 지었다. ㉞ ‘성스러운 제왕의 혼령이 아들을 낳았으니, 비형랑의 집이 이곳이라네. 날고뛰는 온갖 귀신들아! 이곳에 머물지 말지어다.’ 나라 풍속에 이 글을 써 붙여서 귀신을 쫓아버리곤 하였다.²⁶⁾

26) “留御七日 常有五色雲覆屋 香氣滿室 七日後 忽然無蹤 女因而有娠 月滿將產 天地振動 產得一男 名曰鼻荊 眞平大王 聞其殊異 收養宮中 年至十五 授差執事 每夜

[자료9] - ①은 진지왕 왕권서사에서 [자료3] - ② - ㉔의 폐위기사의 일부를 이루는 동시에 도화녀 이류교혼담의 종결부에 해당한다. [자료9] - ②는 [자료9] - ①에서 도화녀와의 이류교혼으로 탄생한 비형량이 진평왕의 반(反) 진지왕 왕권질서에 대하여 타고 난 제귀(制鬼)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이고, [자료9] - ③은 그 제귀 능력의 입증으로 비형량이 문신으로 좌정함으로써 신성성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다. [자료9] - ③ - ㉔는 비형량에 관한 글을 대문에 붙인 것이 잡귀를 쫓는 문배가 되었다는 것으로 비형량의 문신좌정을 설명해준다. 그런데 [자료9] - ③은 문신 좌정이라는 비형량의 이니시에이션이 완결되는 종결부인 동시에 진지왕의 왕권 신성화를 위한 이니시에이션이 완성되는 대단원이기도 하다. 즉, [자료9] - ①의 배경 설화 구실을 하는 진지왕의 폐위담도 [자료9] - ③으로 수렴되고, [자료9] - ②의 제귀 능력 입증담도 [자료9] - ③으로 수렴되어, 사실상 [자료9] - ③ 위에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을 위한 통과제의와 비형량의 문신좌정을 위한 그것이 이중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구조다. 비형량의 문신좌정을 진지왕의 복권에 등치시키기 위한 서사적 목적성이 이러한 적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형량의 문신좌정 자체가 진지왕의 왕권을 재확인하는 증거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조건

逃去遠遊 王使勇士五十人守之 每飛過月城 西去荒川岸上[在京城西] 率鬼衆遊 勇士伏林中窺伺 鬼衆聞諸寺曉鐘各散 郎亦歸矣 軍士以事奏 王召鼻荊曰 汝領鬼遊信乎 郎曰 然 王曰 然則汝使鬼衆 成橋於神元寺北渠[一作神衆寺 誤 一云荒川東深渠] 荊奉勅 使其徒鍊石 成大橋於一夜 故名鬼橋 王又問 鬼衆之中 有出現人間 輔朝政者乎 曰 有吉達者 可輔國政 王曰 與來 翌日荊與俱見 賜爵執事 果忠直無雙 時角干林宗無子 王勅爲嗣子 林宗命吉達 創樓門於興輪寺南 每夜去宿其門上 故名吉達門 一日吉達變狐而遁去 荊使鬼捉而殺之 故其衆聞鼻荊之名 怖畏而走 時人作詞曰 聖帝魂生子 鼻荊郎室亭 飛馳諸鬼衆 此處莫留停 鄉俗帖此詞而辟鬼.” 『三國遺事』卷第一 紀異 第一.

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비형량과 진지왕의 혈통적 연관성이다. 비형량의 문신좌정이 진지왕 왕권의 재확인과 등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비형량을 진지왕의 아들로 설정해 놓은 <도화녀 비형량>의 허구적 설정이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향유층이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비형량의 문신좌정은 허구적인 서사의 영역에만 한정되지만,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 문제는 실제 역사적 현실세계가 개입되는 교술²⁷⁾적 서사의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즉, 후자는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에 의해 허구적 자아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가 등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허구적 작중 세계에서 비형량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 비형량이 실제 진지왕의 아들에 대응된다는 대유(代喻) 관계가 서사적 전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비형(鼻荊)은 코에 가시를 췌 민화 속의 일반적인 용의 형상을 한자로 파자해 놓은 이름으로, 진지왕의 아들인 용춘(龍春)을 상기시킨다. 현실세계의 적통자인 용춘이 진지왕계의 왕위계승권을 부활시키지 못했으니 그를 작중 세계로 끌고 들어와서 도화녀의 아들로 허구화시키게 되면, 도화녀가 본래 지니고 있었던 문신 신직에 대한 신성관념을 진지왕의 계보에 유입시켜서 진지왕에게 신성성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해 지게 된다. 비형량을 진지왕 왕권의 신성화를 위해 허구화시킨 용춘의 대유 인물로 받아들였던 향유층의 인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형량과 진지왕가의 신앙관념적 연관성이다. 비형량의 문신좌정이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을 위한 서사지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진지왕이 속한 왕가의 전통적인 신앙체계 속에 본래부터 비형량과 관련된 관념의 기원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신라 왕가의 신앙 전통 속에 문신관념

27) 교술문학의 정의는 조동일의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집문당, 1992, pp.1-372.)을 따랐음.

에 대한 인식체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문신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목신에 대한 신앙관념이 존재해야 진지왕의 아들 비형랑의 문신좌정이 진지왕의 왕권 정당화와 신성화 지표로 환치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형랑 이전의 신라건국신화나 시조신화의 체계 속에 문신관념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텍스트는 없다. 대신 문신관념으로 전이되어 나간 목신 관념은 확인된다. 종래 비형랑 설화²⁸⁾로 알려져 왔지만 실은 신라 왕가의 토착 목신에 관한 전승이었던 목랑·두들(豆豆里·豆豆乙) 설화가 바로 그 예다. 관련 설화 자료를 검토해 보면 목랑·두들(豆豆里·豆豆乙)은 처음부터 비형랑과 동격의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 왕가의 목신(木神)이었던 것으로, 애초 별개의 전승이었던 것이 음운적 연상성에 의해 비형랑과 결합된 것이 드러난다.

[자료10]

- ① 귀교(귀교) : 신원사(신원사) 옆에 있다.
 - 《삼국유사(삼국유사)》에 이르기를,
- ② ㉠ 진지왕(진지왕)이 사랑부(사랑부)의 도화랑(도화랑)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궁중으로 불러들여 가까이하러 하니, 도화랑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있으니, 비록 죽을지라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농담으로 이르기를, “남편이 없다면 되겠느냐?”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그 해에 임금이 ㉡ 죽고 2년 뒤에 그녀의 남편도 죽었다. 열흘 뒤의 밤에 임금이 평상시처럼 그녀의 방에 와서 이르기를, “네가 전날 허락한 바 있는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 되겠구나.”하고 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홀연 보이지 않았다. 여자가 드디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이 비형(비형)이다.

28) 강은혜, 「<도화녀·비형랑>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豆豆里)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120, 한국어문학회, 2013.

- ③ 진평왕(진평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길렀는데, 15세가 되자 밤마다 월성(월성)을 날아 넘어가서 서쪽으로 황천(황천) 언덕에 이르러 귀신들과 놀다가, 여러 절의 새벽 종 소리를 듣고는 흩어지는 것이었다. 임금이 용사(용사)를 시켜 엿보게 하여 그것을 알고 비형에게 묻기를, “네가 귀신들을 거느리고 논다 하는데 참말이나?”하니, “그렇습니다.” 하였다. “그렇다면 네가 귀신들을 시켜서 신원사(신원사) 북쪽 도랑에 다리를 놓게 하여라.” 하니, 비형이 그들을 시켜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큰 다리를 놓았으므로 귀교(귀교)라고 이름을 지었다. 임금이 또 묻기를, “귀신들 중에 인간 세계에 나와서 정치를 도울만한 자가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길달(길달)이라는 자가 쓸 만합니다.” 하였다. 이튿날 비형이 길달을 데리고 와서 함께 뵈었다. 임금이 길달에게 벼슬을 내리고 일을 시키니 과연 충직(충직)하기가 비길 데 없었다. 그때 각간(각간) 임중(임중)이 아들이 없으므로, 임금이 길달을 후사(후사)로 삼으라 하였다. 임중은 길달에게 흥륜사(흥륜사)에 누문(누문)을 창건(창건)하게 하고, 이름을 길달문(길달문)이라 하였다. 하루는 길달이 여우로 변하여 도망가므로, 비형이 귀신을 시켜 잡아 죽였다. 그 뒤부터는 귀신들이 비형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여 달아났다.
- ④ 그때 사람이 가사(가사)를 짓기를, “성제(성제)의 혼이 아들을 낳은 비형랑(비형랑)의 집이로다. 날거나 달리는 모든 귀신들은 이곳에 머물지 말라.” 하였다. 경주의 풍속에 지금도 이 가사를 문에 붙여서 귀신을 쫓는다.
- ⑤ 이것이 동경 두들의 시초이다.²⁹⁾

[자료11]

- ① 왕가수(王家藪) : 부(府)의 남쪽 10리에 있다. 주(州)의 사람들이 목랑(木郎)을 제사 드리던 땅이다. 목랑은 속(俗)에서 두들라고 부르는데 비형(鼻荊) 이후 속(俗)에서 두들(豆豆里) 섬기기를 심히 성히 했다.³⁰⁾

29) <鬼橋>, 『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蹟條.

30) <王家藪>, 『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蹟條.

- ②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에 있다. 당(당) 나라 정관(정관) 6년에 신라의 선덕왕(선덕왕)이 창건하였다. 불전(불전)은 3층으로서 체제가 특이하다. 신라 때의 불전이 한둘이 아니었으나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헐어졌는데, 유독 이 불전만은 완연히 어제 지은 듯한 모습으로서 있다. 속설이 전하기를, “이 절 터는 본래 큰 못이었는데, 두두리(두두리)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하루 밤 사이에 메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한다.³¹⁾

[자료12]

비형랑은 혹 목랑(木郎)이라고 칭하며, 또한 두들(豆豆里)라고 이름하기도 한다.³²⁾

[자료10]과 [자료11]은 비형랑이란 이름이 언급된 가장 빠른 시기인 15세기 후반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소재 설화들이다. 우선, [자료10]은 『삼국유사』본 <도화녀 비형랑>을 모본으로 하되, 거기서 진지왕 서사만을 생략하고 도화녀·비형랑 서사를 독립시켜 요약한 후에 두들의 연원을 신원사(神元寺) 귀교 유래담으로 풀이해 놓은 텍스트다. 『삼국유사』본 <도화녀 비형랑>과 비교하여 이본간 변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우선 텍스트 도입부 [자료10]-①의 귀교에 대한 설명과 『삼국유사』 출처가 부기되어 있고, 종결부에 [자료10]-⑤동경 두들의 기원설명이 부기 되어 있다. 중간부인 [자료10]-②·③·④는 각각 <도화녀 비형랑>의 인귀교혼담과 비형랑 탄생담, 비형랑의 제귀(制鬼) 능력 발휘담, 비형랑의 문신 좌정 후일담에 대응되어 총체적으로 비형랑의 문신좌정 이니시에 이션으로 귀결된다. 대신 [자료10]-②-⑦와 ④에서는 각각 <도화녀 비형랑>의 진지왕 등극-폐위담과 진지왕 폐위담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자

31) <靈妙寺>, 『東國輿地勝覽』卷21, 慶州府, 古蹟條.

32) “鼻荊郎, 或木郎稱, 亦名豆豆里.”, 李學達, <嶺南樂府>, 『洛下生全集』.

료10] - ④에 <도화녀 비형량>의 후일담에서와 같은 진지왕의 성제 시호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자료10] - ②에서 진지왕의 등극담과 폐위담을 모조리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자료10] - ④의 성제 시호는 진지왕 왕권을 재확인하는 서사적 지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자료10] - ②의 인귀교혼담 역시 [자료10] - ②-㉗·㉘의 진지왕 등극-폐위담 삭제로 인해 진지왕 왕권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료10]의 <귀교>는 <도화녀 비형량>에서 진지왕 서사와 도화녀 서사를 삭제하고 비형량 서사로 재구성한 이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비형량 설화의 범주로 분류되게 된다.

[자료10]의 <귀교>의 비형량 서사가 문신 좌정담으로 재구성 되어 있고 이 비형량이 동경두들의 시초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때의 동경두들은 경주문신(慶州門神)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두들이 원래 무엇이었느냐다. ‘두들’은 본래 경상도 방언으로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게 언덕이 진 곳’이라는 뜻이다. 지금 시점에서 경상도 방언이니 신라 시대에는 신라 표준어였을 것이다. 이 신라 표준어로서의 두들의 어원이 문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본래 언덕을 뜻하는 신라어 두들은 도화녀의 도목문신 신직이 연상시키는 (문을) ‘두드리다’와 음운상 유사하다. ‘두들’에 어미 ‘-기다’를 붙이면 ‘두들기다’가 되어 화중에게 일회적인 연상 이상의 화용적 확신을 주게 된다. 두들이 두들기다란 말로 전이되면 애초의 문과 관련된 연상이 탈락되면서 ‘두타(豆打)’라는 단어로 전이될 수도 있다. 문을 ‘노크하다’의 ‘두들기다’가 아니라 대상을 ‘때리다’의 두들기다를 연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두들’이라는 말은 언덕을 뜻하는 본래의 표의에서 분리되어 화중에게 표음적으로 전이되는 순간부터 도화녀의 도목문신과의 관련성 속에서 전승이 이루어질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형랑이 도목문신의 의인화 된 존재인 도화녀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 이러한 화용 변이의 맥락 속에서 도목문신의 아들 비형랑은 문을 두드리는 두들 문신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11]은 문신 비형랑 이전의 두들신 기원을 보여준다. [자료11] - ①은 왕가수(王家藪)란 지명의 유래를 설명한 텍스트인데, 여기서 원래 두들은 경주부 남쪽 7리에 있는 왕가수에서 제사를 올리던 목랑(木郎)이라고 했다. 왕가수라면 왕가(王家)의 숲이란 뜻인데 언덕진 곳을 의미하는 두들과 어원이 상통한다. 왕가제사(王家祭祀)를 올리던 곳이라 했으니, 왕가수는 신라왕실의 제사지였던 숲 두들로 풀이 된다. 이 신라 왕가 숲 두들에서 제향을 올리던 대상이 목랑이고 이 목랑을 속어(俗語)로 푼 것이 두들이라고 했으니, 두들은 원래 신라왕가의 목신을 속어로 표현한 것이 된다. 두들과 관련된 관건은 왜 이 신라 왕가 목신이 하필 '두(豆)'라는 한자어로 표현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두(豆)는 곧 나무로 만든 높이 1척의 고대 제기(祭器)로 목두(木豆)³³⁾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향속(鄉俗)에서 왕가의 목신을 직접 부르지 못하고 기휘(忌諱) 하여 돌려 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해당 목신에게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징표였던 목두(木豆)로 제사를 올리던 목둘(리/을)(木豆里/乙)이 목신의 환유어(換喩語)가 되고, 이것이 다시 목둘이 있던 언덕의 두들로 2차 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두들은 원래 신라왕가의 토착 목신을 신라 사람들이 민속어로 풀어서 돌려 부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비형랑 이후로 두들신앙이 민간에서 성행하게 되었다는 [자료11] - ①의 언급은 비형랑을 계기로 신라 왕가의 특정 제사처인 왕가수에서만 제향되던 목신두들이 경주 전체의 문신두들로 의미가 대중화되었다는 사실을 나

33) 『釋奠儀』; 『考工記』; 『爾雅』.

타난다. 도목문신의 기원을 지닌 도화녀의 아들 비형랑이 곧 신라 진지왕의 아들이니 신라왕가 전용 특수신이었던 목신은 민간대중의 나무문신으로 대중화 되는 신앙관념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래 왕실 목신을 민간에서 기휘한 이름이었던 두들은 경주 전체 민간의 두들문신으로 의미가 확산되면서 비형랑과 결부된 경주 두들문신이라는 신직 범주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 비형랑이 곧 목랑이며, 두들이라는 [자료12]의 인식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형랑이 곧 목랑·두들이 특수화 된 인격이라는 것이지 목랑·두들이 곧 비형랑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비형랑은 목랑·두들신에 포함되는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명제로 표현하자면 비형랑은 목랑·두들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자료11] - ②이다. [자료11] - ①과 같은 『동국여지승람』의 경주부 고적조에 기재되어 있지만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랑이 귀신 무리를 거느리고 건설했다고 되어있는 신원사(神元寺) 귀교(鬼橋)가 여기서 영묘사(靈妙寺)의 귀교로 되어 있으며, 비형랑의 이름은 빠지고 다만 두들의 무리가 건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 4년에 건립되었는데, 신라의 7처가람 중의 하나로, 왕실에서 특별 관리하던 성전(成典)이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자료10]에서는 같은 귀교가 신원사 옆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 <도화녀 비형랑>에서 비형랑이 건설했다고 하는 그 신원사 귀교와 일치하는 것으로 서술해 놓았다. 비형랑이 곧 동경두들의 시초이니 신원사의 귀교도 두들이 만든 것이라는 논리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자료10]은 모본인 <도화녀 비형랑> 이후에 비형랑의 기원을 두들과 일치시킨 텍스트다. 귀교의 연원에는 비형랑인 두들에 의한 신원사 계열과 비형랑이 아닌 두들에 의한 영묘사 계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10]의 신원사 귀교 유래설화는 비형랑을 매개로 신라왕가의 두들에

대한 신앙관념을 진지왕계 금륜태자 집단의 왕권과 결합시킨 텍스트가 되고, 반면 [자료11] - ②의 영묘사 귀교 유래설화는 비형량 이전부터 존재하던 신라 왕가의 두들 신앙관념을 선덕여왕이 창건한 영묘사에 부기시켜 동륜태자계 집단의 왕권을 부각시키고자 한 텍스트가 된다.

결론적으로 신라왕가 일반의 토착 목신에 관한 개별 전승이었던 두들이 대중화 되는 과정에서 음운 연상 작용에 의해 두들을 두드리는 목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향유층의 수용의식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도화녀의 도목 문신에 관한 관념을 서사적 매개체로 하고 있는 동시에 진지왕의 아들 용춘의 허구적 대유인물로 인식되던 비형량이 곧 문신 두들이라는 인식이 생성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라 왕계 누구와 결합하든 왕권 강화의 서사적 매개로 인식되던 두들이 비형량과 최종적으로 결합되어 두들신 비형량의 문신좌정 이니시에이션이 진지왕의 왕권을 재확인하는 서사적 지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나오는 말

본 연구는 선행연구사가 <도화녀 비형량>을 진지왕계 왕권설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그 왕권설화적 특성이 왜 하필 역사적 실존인물도 아닌 도화녀·비형량이라는 허구적 캐릭터의 고유명사와 결합되어있으며, 그 결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서사 인식적 연맥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해 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재 진지왕의 왕력기사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도화녀 비형량>의 기저서사가 진지왕의 등극담이며, 이것의 반(反) - 서사로 존재하는 진지왕 폐위담의 진실

성을 서사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저서사를 변형시킨 데서 출발한 텍스트리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다음은 이 서사적 목적성과 도화녀·비형랑 관련설화의 상호 결합원리에 주목하였다. 도화녀의 경우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데다 해당 고유명사가 직접 거명된 자료 전승이 없지만 그 이름이 연상시키는 도목(桃木)과 관련된 방계 설화자료 속에서 비형랑의 신직인 문신에 대응되는 두타추나(豆打追儺)와 도목문배(桃木門排) 관념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도화녀와 관련된 이 도목설화의 연원이 자체적으로 진지왕의 왕권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의 서사목적성을 만족시키는 한편, 비형랑의 문신관념에 대한 서사인식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도화녀 관련설화가 해당 텍스트의 서사목적을 매개하는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비형랑의 기원설화라고 알려진 목랑·두들 설화가 비형랑의 신직인 문신(門神)과 직접으로는 관련 없이 별도의 개별 맥락에 의해 생성되었던 신라 왕가 토착 목신(木神) 전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별도의 개별 맥락에 의해 생성되었던 신라 왕가 토착 목신(木神) 전승이며, 애초 문신이 아니었던 목신에 관한 신앙관념이 비형랑의 문신에 대한 관념으로 전이되어 최종적으로 진지왕 왕권의 재확인이라는 <도화녀 비형랑> 텍스트의 서사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맥락을 규명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桃花女 鼻荊郎>,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2. 논문 및 단행본

강은혜, 「<도화녀·비형랑> 설화에 나타난 두두리(豆豆里)신앙의 지역화와 진지왕
계 복권신화적 기능」, 『어문학』120, 한국어문학회, 2013, pp.111-139.

김윤하, 「신라 왕경 숲 조성에 있어서 주요 수종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권 5호, 한국조경학회지, 2004, pp.52-62.

왕가용, 「한·중 문신 설화의 유형성 비교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1-38.

엄기영, 「『三國遺事』 <桃花女 鼻荊郎>의 신화적 특징과 그 의미」, 『한국문화연구』
25, 한국문화연구원, 2013, pp.37-61.

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으로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81, 한국역사연구회, 2011, pp.139-174.

장덕순, 『韓國說話文學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pp.1-570.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pp.1-372.

최래옥, 「官奪民女型 說話의 연구」, 『韓國古典散文研究』, 장덕순 선생 화갑기념 논
문집, 1981, pp.1-515.

Abstract

Layer Structure of <Dohwanyeo and Bihyoungrang> and
Combinatorial Principle of Tales Related to
Jinjiwang · Dohwanyeo · Bihyoungrang

Kwon, Do-Kyung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why royal characteristics of authority tale is combined to Dohwanyeo · Bihyoungrang's proper name of all things, not person existed historically and as which combinatorial principle it's combination is made up. Firstly, This paper investigated that <Dohwanyeo and Bihyoungrang>'s basic narrative is a tale about being king and this is the text to transform basic narrative with the purpose of rebutting honesty of tale about Jinjiwang's dethronement by comparing with article about Jinjiwang's royal authority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Secondly, to attend is mutual combination principle existing between this narrative finality and tales affiliated to Dohwanyeo · Bihyoungrang. This paper investigated origin of peach tree tales affiliated to Dohwanyeo satisfies narrative finality of <Dohwanyeo and Bihyoungrang> for reconfirming Jinjiwang's royal authority and mediates narrative cognition on door's god of Bihyoungrang.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d Mokrang · Doodle tales that has been know as Bihyoungrang's original tales are oral heritages about Silla royal family's aboriginal tree god that was created by separate context without reference to Bihyoungrang's door god role and at first religious notions tree god that wasn't door god is transferred as notions about Bihyoungrang door god and realizes narrative finality of <Dohwanyeo and Bihyoungrang> for reconfirming Jinjiwang's royal authority.

Key Word : <Dohwanyeo and Biyoungrang>, Dohwanyeo, Biyoungrang, Jinjiwang, peach tree tales, Mokrang tales, Doodle tales, Jinjiwang tales, driving away evil spirits by peach tree, peach tree's door god, tree god, basic narrative, layer narrative, ani narrative,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tale about Jinjiwang's dethronement.

권도경

소속 :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주소 : 충북 제천시 세명로 65 세명대학교 학술관 529호

전화번호 : 010-4655-8993

전자우편 : dkkwon@semyung.ac.kr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